

## 경기필 지휘봉 잡은 거장 “기대 이상... 세계로 도약할 것”

마시모 자네티 상임지휘자로 성공적 첫 연주



연주가 끝났다. 백안으로 무대에 올랐던 지휘자는 두 시간여 만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오케스트라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만족스럽다’는 의미로 읽혔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객석의 박수를 한껏 받으며 퇴장하는 그 순간까지 표정이 밝다. 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세계

적인 거장 마시모 자네티와 경기필하모닉의 연주회 현장이다.

“오케스트라는 나 혼자 이끄는 게 아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경기필하모닉의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를 맡은 마시모 자네티(사진)는 첫 연주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경기필하모닉은 잠재력과 재능이 뛰어나며 아주 젊은 오케스트라”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매번 내고 있으며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했다.

마시모 자네티는 드레스덴 슈타츠키팔레·베를린 슈타츠키팔레·베를린 슈타츠히페·드레스덴 젠퍼오퍼 등 세계 최정상 악단과 오셀로·카르멘·피가로의 결혼 등의 오페라를 공연한 마에스트로다. 유연하면서도 불처럼 열정적인 지휘로 이름이 났다. 9월부터 2년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한다. 8일 열린 첫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연중 약 10여 차례 경기필하모닉을 지휘한다.

마시모 자네티는 “세계로 도약하는 경기필하모닉을 위해 힘쓰겠다”고 각오를 남겼다. 그는 “오기 전에 리카르도 무티가 두 번이나 경기필하모닉을 지휘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지금 그걸 느끼고 있다”며 “아주 테크니컬한 오케스트라이며 무엇이든 받아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경기필하모닉의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통하는 오케스트라를 강조했다. 그는 “처음 경기필하모닉을 만났을 때 단원들의 굳어 있던 표정을 기억한다”며 “처음에는 의견 한마디조차 꺼내길 어려웠으나 티타임을 가지며 분위기가 풀리고 있다. 단원들이 보내는 미소가 조금씩 느껴진다”고 말했다.

마시모 자네티는 첫 연주회에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35번 하프너’를 비롯해 오페라 ‘돈조반니’ 등의 아리아 그리고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중 일부를 발췌해 연주했다. 박해상 소프라노가 함께했다. 오페라 레퍼토리에 자신있는 자신의 특징점을 살린 연주회다. 이날 연주에 이어 11일에 경기필하모닉의 고향인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도 공연한다. 모차르트의 아리아 대신 김지연 바이올리니스트와 송영훈 첼리스트와 브람스의 ‘이중협주곡’을 지휘할 예정이다.

이정현 기자 seiji@

[리뷰] 드라마틱 자네티 '마시모 자네티 & 경기 필하모닉'

2018.09.18 12:46 입력



▲마시모 자네티는 드라마를 다루는 능력이 탁월하다. (사진:경기도문화의전당)

[위드인뉴스 권고등의 꿈은 클래식]

**마시모 자네티가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서 한국 관객과 처음 만났다. 자네티는 모차르트 <교향곡 35번 "하프너">로 '상쾌하게 연주회의 문을 열더니 이내 자신의 잠기인 오페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1, 2, 3번의 발채곡 역시 오페라 지휘자로 유럽에 명성을 쌓아온 자네티의 장점을 심문 드러내는 프로그램이었다.

**음악으로 전하는 취임사**

자네티는 '예술과 만남' 4.5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경기 필하모닉이 "모차르트 하이든 등 18세기의 음악을 덜 연주하는 편이다"며 18세기 음악을 자주 연주할 것이라 언급을 남겼다. 모차르트 <교향곡 35번 "하프너">는 이러한 자네티의 복안이 무대에서 실현된 것. 아울러 <하프너 교향곡>은 모차르트의 위대한 후기 교향곡 세계를 여는 신호탄이다. 따라서 자네티에게 이곡은 경기 필하모닉과 밝은 미래를 열겠다는 일종의 다짐이자 음악으로 전하는 자네티의 취임사인 셈이다.

전체적으로 활기찬 진행과 명료한 선율은 그가 이탈리아인임을 말하는 듯했다. 밝고 쾌활한 해석은 호불호가 가릴 수 있겠으나 모차르트가 다 폰테 시리즈를 이탈리아어로 작곡한 것을 독일인보다 이탈리아인의 기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네티의 이탈리아인다운 모차르트는 어쩌면 그리 어색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차르트의 마리아에서 자네티는 자신이 오페라 지휘자로서 유럽에서 쌓아올린 명성을 한눈에 펼쳐보였다. 유려한 선율을 중심으로 연주를 리드하며 절정에서 시원하게 터트리는 숨씨가 상당했다. 자유자재로 리듬을 밀고 당기며 관객들의 감정을 절정으로 이끌었다.

솔리스트로 무대에 오른 소프라노 박혜상은 모차르트에 어울리는 음색으로 섬세한 연기를 선보였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가사의 발음도 하나하나 신경 쓰며 연기했다. 하지만 성량이 다소 부족해 절정에서의 드라마틱한 모습이 아쉬웠다. 자네티의 해석이 더없이 드라마틱한 까닭에 섬세한 가창을 선보이는 박혜상과 아주 좋은 궁합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못르트다운 경쾌함이 가득한 무대였다.



▲소프라노 박혜상의 연기는 섬세하다. (사진: 경기도문화의전당)

### 연주에 서사를 부여하는 능력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은 이날 프로그램에 다양성을 부여했다. 독일과 러시아 레퍼토리가 섞여있으며, 18세기와 20세기 음악이 한 무대에 올랐다. 자네티는 경기 필하모닉과 함께 “모든 시대의 음악을 다루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프로코피예프를 선택한 것은 이런 복안의 결과일 것이다. 아울러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은 자네티가 가장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분야, 바로 드라마다.

음악에 서사를 부여하고 절정에서 확실하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자네티의 능력이 일품이었다. 조금 더 호흡을 맞춘다면 와일드하며 낭만적인 사운드를 구사하는 경기 필하모닉을 통해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날 자네티는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음에도 돌이켜보면 음량을 폭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재적소에서 하프의 선율이 명료하게 들릴 정도로 악기간의 음향 밸런스가 좋았다. 그가 선사한 극적인 흐름은 매력적인 선율에 목관의 부선율을 입체적으로 곁들인 결과였다. 긴장과 이완을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자네티의 템포 조절 능력도 드라마가 빛을 발하는데 한몫했다.

피날레를 앞두고 다소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다소 거친 모습도 있었지만 이날 연주는 분명 자네티와 경기 필하모닉의 다음 행보를 주목케 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경기필과 마시모 자네티가 어떤 시너지를 이룰지 기대된다. (사진: 경기도문화의전당)

#### **마시모 자네티 & 경기 필하모닉**

일시·장소: 9월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마시모 자네티

협연: 소프라노 박혜상

연주: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프로그램**

모차르트: 교향곡 35번 D장조 KV 385 “하프너”

모차르트: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오페라 “돈 조반니” 중

모차르트: 콘서트 아리아 “누가 내 연인의 괴로움을 알까?” 등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1,2,3번 중 발레

[리뷰] 대비를 활용한 극적 연출 '경기필하모닉의 브람스 2번'

2018.10.02 14:56 일력



▲벌써 마시모 지네티의 음악이 경기필하모닉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사진: 경기필하모닉)

[위드인뉴스 광고문의 폰은 클래식]

그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9월 8일 취임 연주회를 가진 후 22일만이다. **마시모 지네티의 지휘 아래 경기필하모닉**은 한층 향상된 연주력을 선보이며 다시 한 번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네티의 음악이 벌써 경기필하모닉에 녹아들고 있는 것이다.

밝고 아름답다

〈교향곡 2번〉은 밝고 아름다우며 여유로운 흐름 때문에 '브람스의 전형 교향곡'이라고 불리곤 한다. 음악학자 헤르만 크레츠퍼트 이곡의 도입부를 "저물어 가는 태양이 송고하면서도 맑은 빛을 던지고 있는 즐거운 풍경이다"고 표현했다. 저음현의 기본 동기에 목관과 호른의 부드러운 음형이 더해지면 전현의 풍광이 펼쳐지는 것만 같다. 그래서 많은 지휘자들이 자칫 과도하게 여유를 부리는 실수를 범한다. 사실 브람스는 이곡의 빠르기를 알레그로 논 트로포로(S allegro non troppo) 쪽, 빠르지만 과하지 않게 연주하라고 지경했다.

지네티의 연주를 살펴보자. 저음현의 기본 동기를 지나치마자 경쾌하게 음악을 진행시킨다. '진한'이란 이미지에 걸맞게 밝고 순음적인 아르다를 선사한다. 아름다운 선율과 이를 감싸는 풍성한 화성이다. 공음을 두텁게 썼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자칫하면 답답한 음향으로 변질될 여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네티는 명징한 바이올린 사운드로 영리하게 사운드를 운용했다. 드라마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지네티의 솜씨는 브람스 〈교향곡 2번〉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4악장에서 화려한 질주를 선보이기 전까지 적절한 템포 조절과 음향 밸런스로 깊은 잠잠을 유지하다 4악장에 이르러 폭발시켜버린 것이다.



▲22마디와 23마디를 경계로 이음줄이 사라지고 스카카토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다.

지네티의 4악장 도입부를 해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악보를 보면 'sotto voce'라고 적힌 것이 보인다. 이탈리아어로 속삭이듯이 연주하라는 의미다. 22마디까지 이지는는 유효하다. 지네티는 브람스가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첫 22마디를 위한 것이 아니라 230마디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모양이다. 다시 말해 23마디의 프르테(♯, 세게)가 효과적으로 등장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이런 지네티의 생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있다. 바로 이음줄의 유무다. 22마디까지 모든 이음줄이 사라진다. 각 음을 하나의 음처럼 연주하는 레가토 방식으로 연주하란 의미. 하지만 23마디부터 이음줄이 사라진다. 스카카토가 등장한다. 음을 끊듯이 명징하게 연주하란 지시로 볼 수 있다. 22마디에 230마디로 넘어가며 음향이나 표현 등 많은 부분이 극적으로 변화를 겪는다. 지네티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요소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 폭발적으로 변화를 이끌며 피날레까지 단숨에 질주하며 관객의 귀를 사로잡았다.

디딤이 높은 말도의 바이올린 사운드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의 사운드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말도가 높다. 연주자를 지치게 만드는 다양한 기교가 연속해서 등장하지만 피날레까지 말도를 유지하는 체력도 인상적이다.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닮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연주의 관건은 협연자인 조진주와 지휘자인 지네티의 호흡에 달렸다.

오페라 무대에서 명성을 쌓아왔기 때문일까, 지네티는 협연자가 돋보여야 할 부분과 지휘자라 오케스트라가 최고 나와할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조진주 말도 높은 연주와 지네티 명징한 지휘만큼이나 인상 깊은 부분은 경기필하모닉의 음향 컨트롤이었다. 앞서 지네티는 브람스 〈교향곡 2번〉에서 다이내믹과 템포를 통해 극적인 대비를 연출했던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에선 음향 차를 이용해 같은 효과를 거뒀다.

이날 경기필하모닉의 편성은 콘트라베이스가 6대였다. 다시 말해 결코 대편성이라 할 수 없는 규모였다. 그런데 지네티가 선보인 폭발하는 듯한 음향은 물리적으로 소리가 컸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소리에 큰 소리의 낙차를 극적으로 연출한 결과였다. 드라마틱한 지네티의 음악이 더욱 녹아들면 과연 어떤 연주를 선보일지 궁금하다.



▲이날 경기필하모닉은 크지 않은 편성에도 폭발적인 음향을 선사했다. (사진: 경기필하모닉)

경기필하모닉의 브람스 2번

일시: 장소: 9월 30일 롯데콘서트홀  
지휘: 마시모 지네티  
협연: 바이올린 조진주  
연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op. 47  
브람스: 교향곡 2번 D장조 op. 73

## 공연리뷰/경기필하모닉의 브람스 2번

여흥일기자 | 승인 2018.10.03 16:41

유럽의 콘서트홀에서 듣는 듯한 브람스 교향곡 2번

유럽의 콘서트홀에서 듣는 듯한 **브람스 교향곡 2번 1악장 Allegro non troppo**, 그런데 연주단체는 유럽의 명문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최근 지휘자의 요구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칭송을 받고 있는 국내의 **경기필**이다.

요즘 경기필의 위상은 과거의 별 볼일 없었던 경기필이 아니다. 중앙의 서울시향이나 KBS교향악단을 넘어 국제적 위상을 넓히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경기필의 연주력을 주목해 보기 시작한 것은 리카르도 무티, 얀판츠베덴, 핀커스주커만등 저명 지휘자들과 연주자들이 1-2년전서부터 잇따른 경기필의 객원지휘를 맡으면서부터다.



아시아권 오케스트라와도 서로 한 방향을 바라보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호들랭을 보이고 있는 마시모 자네티가 광주교향악단 협연시 New York Phil First Oboe Wang Liang과 협연하고 있는 장면(사진: Massimo Zanetti 홈페이지)

지난 9월30일 오후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있었던 상임지휘자 마시모 자네티의 공식 두 번째 서울 나들이 공연은 경기필의 이런 지휘자의 요구에 민첩히 반응하는 연주력이 빛을 발했던 무대였다. 다음날 이곳 롯데콘서트홀에서 사이먼 래틀과 런던 심포니 내한공연이 예정돼 있었음에도 경기필의 무대는 사뭇 긴장감마저 감돌며 국내 지방 소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을 만큼 국내 최고 수준의 연주 하모니를 들려줬다.

경기필의 이런 빠른 위상 증대는 전임 성시연 음악감독 이후 음악감독겸 상임지휘자로 연착륙한 이태리 출신 마시모 자네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마시모 자네티가 NHK심포니를 지휘한 슈트라우스 '차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나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 포레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를 보면 아시아권 오케스트라를 이끌면서도 서로 한 방향을 바라보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마시모 자네티가 전력을 기울이는 상호작용이 느껴진다.

오페라 명장면을 연주하던 바그너 마이스터징거 3막 전주곡의 앵콜은 세계 최고의 오페라하우스에서 활약하는 그의 모습을 국내 오페라 무대에서도 조만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유럽의 1급악단 같은 연주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경기필로서 시간문제로만 남은 것처럼 여겨지는 까닭은 이런 마시모 자네티의 지휘력이 이식될 앞으로의 나날들이 기대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이어진 신선한 관객의 박수세례는 경기필의 향후 연주 스케줄을 계속 주목하게 만든다.

국내 교향악단의 외국인 지휘자 영입 케이스론 과거 KBS교향악단의 드미트리 기타엔코나 오토마 마가, 부산시향의 벨로루시 출신 아니시모프, 현직으로 있는 대구시향의 코바체프와 대전시향의 제임스 저드등이 우선 떠오르지만 마시모 자네티가 신선한 관객의 박수세례를 받는 것은 예전과 다른 것 같아서 경기필이 부디 국제적 바운더리를 넘어 국제적 오케스트라로 우뚝 성장해주길 고대한다.

전반부에 시벨리우스 바이올린협주곡을 협연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는 깊은 서정성과 연주의 부드러움 등 골을 서늘하게 만든다는 평을 입증하듯 시벨리우스 교향복구의 서늘한 등골을 계속 경험케하는 연주를 들려줬고 Over the rainbow로 장르를 넘어선 콜라보레이션으로 열기를 식혔다.